34년 오직 한 길
빅토리 바디샵
벨플라워 플러튼
세리토스 롱비치
다우니 놀워
LIFETIME WARRANTY! 최대 시설/ 최고 서비스/ 저렴한 가격

✔ 보험 수리 전문 (일단, 전화 먼저 주세요!!)
✔ Lease Return
✔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
✔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
✔ Towing & Rent Car
☎ (562)920-9745~6
17441 Clark Ave. Bellflower, CA 90706
Email: victoryautobody@gmail.com

오픈특가 $7.00/LB
aci store
한국택배/ 24H 메일박스 오픈 (부에나팍 사거리)
*전세계 16개국 25직영점 NETWORK/ 항공·해운 물류서비스
*전자상거래- 배대지- 3자물류대행- 한국 역직구 대행-전세계 택배
*개인소화물- 귀국이사- 미국내 화물/이삿짐 운송- 수입수출통관
T.714.735.9277
www.aciexpress.net
www.shippingtohome.com

깔깔 웃음

[남녀평등]

어느 정승댁 며느리가 부처님과 하느님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독대를 청하고 남녀 평등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. 내용인즉 이런 것이었다!

'인간이 아기를 만들 때 남녀가 합작하여 만들었는데 왜 여자만 산통을 겪어야 하나? 하느님, 부처님은 고통 분담의 평등주의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!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온 세상 여성을 모두 불러모아 유모차 끌고 촛불시위를 하겠다.'

촛불시위 소리에 겁을 먹은 하느님과 부처님은 정승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줬다.

이후 온 세상 모든 남자들은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을 똑같이 당해야 했다.

그러던 어느 날 최 정승의 며느리가 만삭의 배를 양손으로 싸 안고 "아이고! 나 죽네!"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방바닥을 나뒹굴고 있을 때, 이와 동시에 정승댁 하인놈 마당쇠가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내던지고 "아이고 나 죽네!"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, 마당 한가운데서 나뒹굴고 있었다.

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박 첨지 며느리가 아기를 낳을 땐 건넛마을 송 서방이 뒹굴었고, 훈장님 마누라가 아기를 낳던 날엔 절간에서 염불하던 스님이 뒹굴었다.

사태가 이쯤 돌아가자 집에서 쫓겨난 여인들이 부처님, 하느님께 찾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.

"남녀평등 필요 없다! 원상 복귀하라! 원상 복귀 안 하면 촛불시위 각오하라!"

[법대로]

지옥과 천국 사이를 가르는 담장이 있었다. 어느 날 아침 순찰을 돌던 천사가 담장에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마귀에게 따졌다.

"아니 당신들이 죄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이렇게 구멍이 생겼잖아. 이 구멍 어떻게 할 거야?"

마귀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.

"아니, 우리 쪽에서 구멍을 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?"

천사가 약이 올라 말했다.

"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? 당연히 지옥에서 넘어오려고 구멍을 낸 거지. 그러니 이 구멍 당신들이 책임져."

"우린 절대 못 해."

"좋아, 정 못하겠으면 반반씩 부담하자."

"우리는 한 푼도 낼 수 없어."

막무가내로 우기는 마귀의 행태에 화가 난 천사가 소리쳤다.

"좋아, 그럼 법대로 하자."

그러자 마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.

"그래, 법대로 해. 변호사, 판검사, 정치인 모두 이쪽에 있으니 겁날 거 하나도 없어."

[어떤 병]

한 여자가 며칠을 망설이다 병원에 갔다.

진찰실에 들어간 여자가 의사에게 아주 고민스러운 듯이 주저주저하며 말했다.

"의사선생님, 저에게는 참 이상한 병이 있어요..... 여자로서 이런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..... 사실은..... 방귀가 너무 자주 나와요."

여자는 부끄럽다는 듯이 얼굴을 붉혔다.

"그런데 너무 너무 이상한 건, 제 방귀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또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요. 선생님은 모르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진찰실에 들어온 이후로도 벌써 이삼십 번은 뀌었을 거예요."

의사는 묵묵히 듣고 있다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.

"다 이해합니다. 일단은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 이 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."

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을 다시 찾은 여자는 의사를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.

"아니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약을 어떻게 지어 주셨길래 병이 낫기는 커녕 이젠 제 방귀에서 심한 냄새까지 난다구요!!"

여자의 말을 잠자코 듣던 의사가 말했다.

"자 이제 코는 제대로 고쳤으니 이번엔 귀를 고쳐봅시다....."

[남자의 3가지 꿈]

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생겨지는 것
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
부인이 의심하는 것처럼 여자가 많은 것

주택 상가 리모델링
하우스 에디션 페인트
▪ 부엌, 화장실, 마루
▪ 창문, 덱, 페티오
▪ 페인트 (In/Out)
▪ 플러밍, 전기
▪ 루핑, 타일
▪ 우드 펜스
119 Construction
(714) 525-5600
Lic #1058593
119 S. Gilbert St.
Fullerton, CA 92833

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을
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.

오렌지 카운티 전지역!
주택 / 아파트 / 상가 / 사업체 전문
REALTOR 데이빗 전
(714)309-2355